

## 이재명, 민주의 심장 광주서 “정권 심판” 호소

5·18묘지 참배·합동 선거대책위 개최·전남대 후문서 시민과 만남  
“총선은 국민과 윤정권의 대결” 강조... AI도시 조성 등 지역 공약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20일 앞두고 텃밭인 광주를 찾아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 개최, 전남대 후문 거리 유세 등 강행군을 통해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대표는 21일 광주 북구 전남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의 삶을 망치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 반(反)국민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민생과 경제가 파탄 난 점 등을 들고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나라를 망치고 주권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국민들의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광주가 지켜낸 민주주의 역사를 끝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면 ‘입찰막’하고 언론을 상대로 ‘칼질막’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은 단 2년 만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국제적인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맹공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다. 요즘 마트나 시장 가기가 겁나지 않다. 내 호주머니는 그대로인데 1만원으로 밥 한끼는 커녕 사과 한 알 겨우 살 수 있다”며 “국민은 하루 하루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은 아무 대책이 없고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민생을 파탄에 빠뜨리고 경제를 폭망시키고 평화의 위기를 몰고 온 구제불능 민생 노담 정권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면서도 지역 공약도 언급했다. 그는 “광주를 모빌리티, AI(인공지능) 반도체 융합 실증 도시로 조성하겠다”며 “광주

서남권에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광주도시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등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임명 철회와 출국 금지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종섭 대사가 ‘도둑 입국’을 했다. 이 대사는 국기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다”며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빼돌리는 등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다.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이 대사가 행사 때문에 귀국했는데 국민 뜻을 존중해서 귀국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총선 전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채 상병 국경조사, 이 대사 도주 사태와 채 상병 특검 등 ‘쌍특검·1국조’를 처리할 것을 알린다. 국민의힘은 손뼉만 킁이라도 국민을 존중하고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쌍특검·1국조에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과 민주연합 선대위가 첫 합동 회의를 열고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았다”며 “광주시민의 윤석열 정부 2년 실정과 패악에 대한 분노는 이미 한계치에 이르렀고 정권 심판의 의지 또한 확고하다. 압도적 승리로 보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 선대위원 등과 함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4·10 총선을 앞두고 5·18묘역을 찾게 됐는데 만감이 교차한다”며 “개인의 알량한 권력욕, 그 특정 집단의 권력욕 때문에 수백명의 무고한 국민을 칼로 찌르고 쇠심 박힌 몽둥이로 때리고 총으로 쏘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18은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현실이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배반하는 용도로 사용한 처참한 역사의 현장에서 이번 4·10총선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시민과 하이파이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 상가를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반갑다 프로야구”... 타이거즈 ‘V12’ 도전 나선다

KIA, 내일 광주서 키움과 개막전



‘V12’을 향한 KIA 타이거즈의 질주가 시작된다.

프로야구 43번째 무대가 23일 오후 2시 챔피언스필드를 비롯한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막을 올린다. ‘우승 후보’로 꼽히는 KIA는 키움 히어로즈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12번째 우승컵 수업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예년보다 일찍 ‘야구 시즌’이 돌아간다. 올 11월에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가 예정됐고, 지난해 기후변화로 인한 우천취소 급증으로 리그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던 만큼 KBO는 개막일을 앞당겨 시즌을 맞는다.

절대 강자가 없는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시즌, 새로운 사령탑을 앞세운 KIA는 우승을 다룰 상위 후보로 꼽힌다.

KIA는 배민수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중국 감독을 대신해 이범호 타격 코치에게 2024시즌 지휘봉을 맡겼다. 현역 시절 ‘캡틴’으로 선수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이범호 감독은 ‘형님 리더십’으로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범호 감독은 선수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라운드를 강

조하면서 KIA 선수단에 새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경쟁 효과’도 올 시즌 KIA를 주목하게 하는 이유다. 선수층이 탄탄해지면서 곳곳에서 자리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시즌 KIA 부진의 한 지점으로 꼽힌 1루도 올 시즌 분위기가 다르다.

이우성의 1루수 변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황대인이 시범경기에서 가장 뜨거운 타격을 보여주면서 경쟁에 불을 붙였다.

나성범의 부상이라는 큰 약재를 맞은 외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부상 공백’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KBO리그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는 소크라테스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자리가 없는 상황. 각기 다른 개성의 외야수들이 경쟁을 하면서 KIA의 달린 전력을 보여준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우성을 외야로 배치할 수 있는 등 전력 운영 폭도 넓어졌다.

2년 연속 KIA의 발목을 잡았던 외국인 투수 전망도 밝다. KIA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 선발을 소화했던 월 크로우와 역시 빅리그 경력이 있는 제임스 네일로 ‘외인 원투펀치’를 구성했다.

남다른 이력의 크로우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개막전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토종 좌완 선발진’도 든든하다. 경험이라는 특급 자산을 보유한 투수 최고참 양현종과 힘을 더한 이의리와 윤영철이 빈틈없이 선발진을 채우고

있다. 시범경기 등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힘과 스피드를 보여준 마무리 정해영도 올 시즌 기대감을 키운다.

‘우승’을 목표로 내세운 이범호 감독은 “멤버들 좋다고 했다, 나성범이 부상당했다고 해서 팬분들이 기분이 좋았다가 가라앉았을 것 같다. 좋은 플레이 보여주면 나성범이 돌아왔을 때 끈끈한 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수들만 야구하는 게 아니라 프런트, 팬들도 같이 뛰는 많은 응원해주시면, 거기에 걸맞은 플레이를 하겠다. 기대하신 만큼 준비 잘 끝내고 개막부터 잘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새 분위기에서 새로 출발하는 KIA가 23·24일 개막시리즈에서 홈팬들에게 기분 좋은 승리를 선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코스피, 미국발 훈풍에 2750 돌파...2년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전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내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됨에 따라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21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2% 넘게 급등 단숨에 2750대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64.72포인트(2.41%) 오른 2754.86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750을 넘은 것은 2022년 4월 5일(2759.20) 이후 716일, 약 2년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41.04포인트(1.53%) 오른

2731.18로 출발한 이후 장중 한때 2755.45까지 오르는 등 오름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8782억원, 1조5255억원을 각각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2조9110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지난달 2일(1조9247억원) 이후 최대고, 기관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12월 20일(1조1549억원) 이후 최대다. 개인 순매도 규모는 지난달 2일(2조4896억원)을 넘는 역대 1위 기록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계약금 결제
- 6년/15000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국내 수입차 차대 인증 중고차 전신망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2000km 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